

강진군, ‘전 군민 무료 예방접종’ 본격 실시

강진군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지난 9월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전 군민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독감 유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접종 일정을 최대 일주일가량 앞당겼다. 접종기관의 혼잡을 줄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대상자와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대상별 접종 일정은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6일부터 ▲15~64세 강진군민은 10월 19일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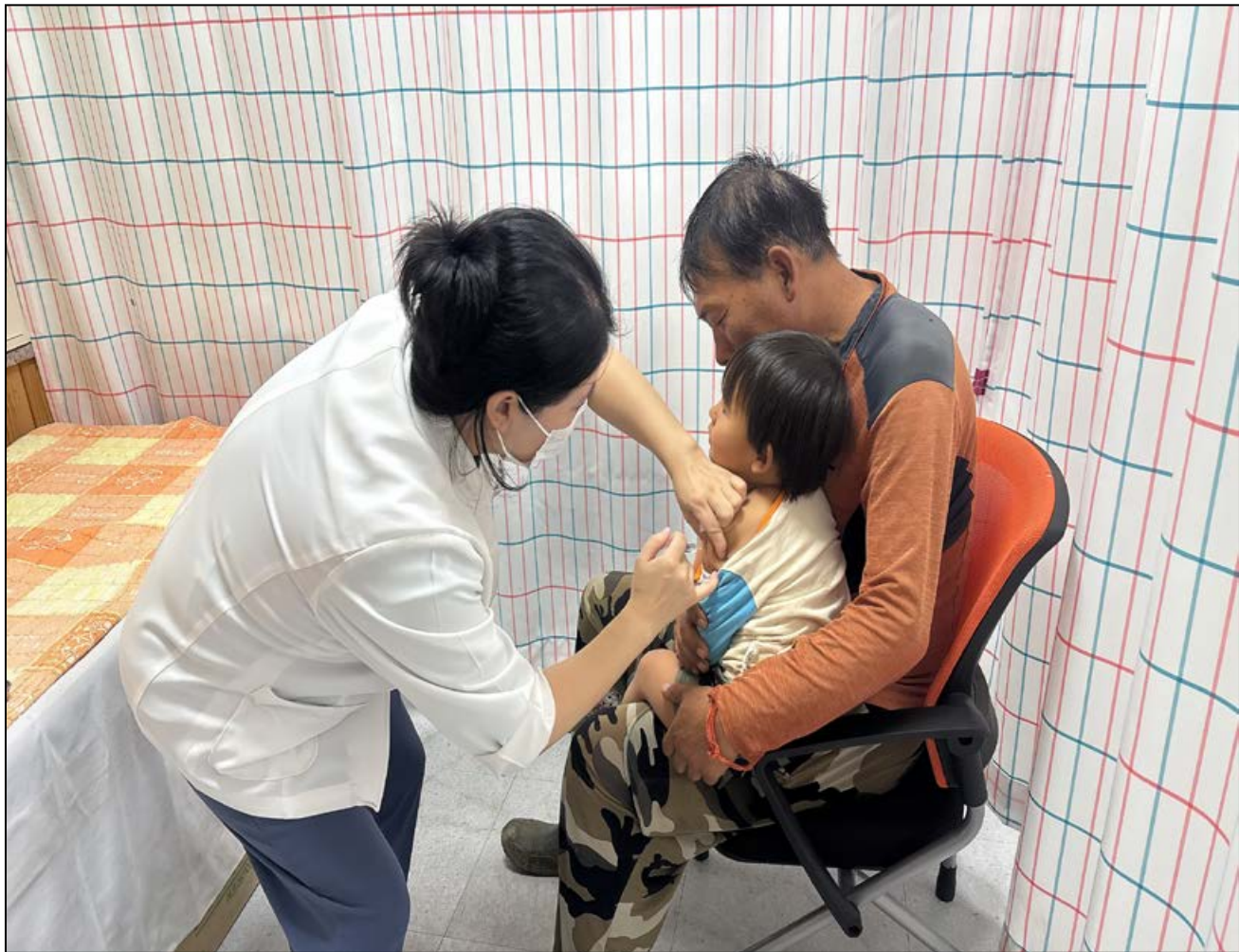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6일부터 지정의료기관 14곳에서 우선 접종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 접종은 10월 19일부터 시작된다. 군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 조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인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 12일부터 실시한다.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만큼 두 예방접종을 동시에 받을 것을 권장한다.

15~64세 강진군민의 독감 예방접종은 올해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뿐만 아니라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10월 19일부터 지정된 위탁의료기관 13개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보건기관에서는 읍·면별 일정에 따라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전 해당기관의 일정을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

접종 대상과 일정,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보건소에서 어린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청계면 첫 ‘마마학당’ 힘찬 출발

무안군은 청계면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과 소통,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마마학당’을 처음 운영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마마학당은 무안군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안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어르신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계면 마마학당에서는 공예와 요리, 원예 등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노래교실과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등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안군은 청계면을 비롯한 읍·면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마학당을 확대 운영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지역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제64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목포시민의날 기념식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1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제64회 목포시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성휘 목포시장을 비롯해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통합특별시·시의원,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장,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기념식 ▲목포시립예술단 기념공연 ‘시민과 함께 새로운 목포’ ▲시정비전 퍼포먼스 ▲‘붉은 노을’ 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선9기 첫 시민의 날을 맞아 시정비전 퍼포먼스를 통해 시정방침과 목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목포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기념공연과 합창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의 날을 기념해 나눔과 할인 행사도 마련됐다.

목포해상케이블카㈜와 ㈜목포삼학도크루즈는 각각 탑승권 100매를 기탁하고, 참석 시민 대상 경품 추첨으로 전달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 총력…군민 결의대회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군민의 염원을 모아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사업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함평군은 1일 “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 기원 결의대회”가 이날 오전 함평읍민의 날 행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함평군의 현실을 공유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군민들의 공감대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들

러 함평군의 시범사업 선정을 한마음으로 지원하며 사업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의지를 다졌다.

함평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로 보고 있다. 이에 군민 공감대를 넓히고 분야별 추진계획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새 동료 73명과 함께 힘찬 출발 사령장 수여식 개최

영암군은 10월 1일 오전 9시 군청 왕인실에서 ‘2026년 영암군 사령장 수여식’을 열고 영암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동료들을 환영했다.

이번 수여 대상은 신규임용 공무원 4명, 실무수습에 나서는 신규임용후보자 68명, 전입 공무원 1명 등 총 73명이다.

이들은 10. 1자로 군청 각 부서와

보건소, 사업소, 읍·면에 배치돼 업무와 실무수습을 시작했다.

수여식은 ‘새로운 동료와 함께, 더 힘차게 출발!’이라는 메시지 아래 영암군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은 직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는 사

람은 없다”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에게 물어보고, 실수하면 다시 배우면 된다. 공직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에 첫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시각을 오래 간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철 기자

신안, 농업기계 안전사용 실무교육 실시

신안군은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2026년도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게차, 굴착기, 관리기, 트랙터 등 4개 기종을 대상으로 총 6회 진행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전체 교육 정원은 180명이다.

교육은 농기계 기종별 작동 원리와 안전사용 요령에 대한 이론교육, 실제 농기계를 활용한 조작·기초 정비 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생들이 배운 내용을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 지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성태 기자

